

경험도 zero 였던 제가 경험으로 배운 발로 뛰는 법!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최성호 1999 년 (24 세/만 23 세) | 남

tjdgh5809@naver.com

010-7724-0978

(08329) 서울 구로구 개봉로 20 길

학력사항	경력사항	희망연봉	희망근무지/근무형태	포트폴리오
대학교(2 년) 졸업		3,000~3,500 만 원	서울전체 정규직	-

학력 대학교 2 **년** 졸업

재학기간	구분	학교명(소재지)	전공	학점
2018.03 ~ 2022.02	졸업 예정	동양미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자격증/어학/수상내역

취득일/수상일	구분	자격/어학/수상명	발행처/기관/언어	합격/점수
2021.05	자격증/면허증	정보처리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합격

2022.03	자격증/면허증	sqld	데이터자격검정	합격
2018.10	자격증/면허증	한국기원아마 5 단	한국기원	합격-

보유기술

보유기술명/수준/상세내용
Python / 기본 기본적인 문법을 독학한 후 실질적인 코딩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C / 기본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힌 후에 코딩테스트와 알고리즘 분야 공부를 했습니다.
mysql / 기본 C 언어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학교 수업 또는 대외활동 등을 통해 습득한 DB 지식이나 기술적 역량]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꿈꾸며]

대학교 입학 전,

저는 제 적성이 it 개발자나 프로그래머가 맞는거 같아 관련 언어들을 선행 학습했고

이를 좀 더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c 언어,java 같은 백 엔드 , 안드로이드나 웹을 담당하는 프론트 엔드 언어 들을 해보는 와중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관련 다른 진로를 찾아보는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DBA 라는 직업을 위해 노력했던 개인적인 활동으로는 평소 DB 에 흥미를 두고

학과에서 배우지 못한 알고리즘을 이해하고자 관련 공부를 독자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정보처리산업기사 필기에 나오는 내용들로 기초지식을 경험해봤고,
Mysql 를 토대로 공부를 시작해 sqld 같은 DB 자격증을 응시해 합격했습니다.
현재는 sqlp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코딩법을 습득하다]

반면 개인적인 활동으로는 평소 DB 에 흥미를 두고, 학과에서 배우지 못한 알고리즘을 이해하고자 관련 공부를 독자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알고리즘의 종류와 코딩법을 익혔으며 가능하면 쉬운 코드로 내용을 구성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프로그래머만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클라이언트에게는 난제가 될 것임을 알기에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코딩 능력을 개선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코드를 좀 더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바꿀 수 있었으며 자연스레 오류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공 강의에서 배운 OS, 자료구조, SW, HW 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보안 등을 추가 학습함으로써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도 준비했습니다.

[직접 체감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제가 과제를 수행할 때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실질적인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나 상품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막연히 이야기하는 불편함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해당 프로그램이나 상품을 충분히 사용해 본 후 느껴지는 불편함까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불편함을 파악한 후에는 그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 및 기술들을 나열하고 분류하여 이를 재편성함으로써 세부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내용들을 공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 비해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정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관련 분야를 깊게 연구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연구의 과정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불편함의 개선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프로그램의 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개발을 하다가 모르는 부분에 부딪혔을 때에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법을 설계한 후 제가 직접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적의 루트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전반에 대한 기본 지식을 넓히려는 시도를 꾸준히 병행하고 있습니다.

[바른 사람, 편안한 사람]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받는 평가는 '바르다', '편안하다'라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약속이라는 사실을 체감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출근

시간은 조직과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했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으며 매니저님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학연수의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팀을 이뤄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팀의 구심점이 되었는데,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게 해주었던 말은 '먼저 말을 걸어 줘서 고맙다'는 것이었습니다. 활발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도 편안하게 배려해 주는 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계기였습니다. 이처럼 시간 약속을 준수하는 성실함과 편안하게 다가가는 태도는 어느 조직에서도 저를 빛나게 해 줄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